

유방암 4기 골반전이

물 파랑새의인연

권대희

중국 시안에서.. 유방암4기 골반전이 권대희(시안)추천 1조회 20517.10.23 11:13

유방암 4기 골반전이

2013년 청도에서 출장 중에 우연히 만났던 조선족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당시 물 파랑새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2013년 11월이 지나가고 12월의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을 할 때쯤.....서안에 계시는 김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권 선생님. 혹시 12월 첫 주에 시간 되시면 같이 청도에 갈수 있나요?”

평소에 저와 친한 친분을 가지고 있는 분 이지만 한번도 어디 가자고 말씀이 없던 분이데 무턱대고 제안을 하는 것도 이상 했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휴가를 받을수 있는 관계로 아무 조건 없이 승낙을 했습니다.

여권 복사본을 보내주고, 비행기 탑승 전 까지 저는 청도를 왜 가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공항으로 출발 했습니다. 공항에서 만나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고 비행기에서 타서 저는 조용히 김 목사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 이제 청도에는 왜 가는지 이야기 해주면 안되나요?...꼭 밑월 여행가는 것 같아서요....ㅋㅋㅋㅋㅋ”

“하하하하.....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드린다는 것을 권 선생님 얼굴 보면서 마음이 들떠서 이야기를 못 했네요. 사실 청도에서 중국 지역과 여러 나라 선교사님들이 2박 3일간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종교국과 안정국(한국에 국정원)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렇게 불편하게 권 선생님을 초빙 하는 것 입니다.”

“저는 선교사님들과 아무 상관 없는데요.....?”

“하하하...선교사님들이 아픈 분들이 너무 많아서 선생님에게 건강상담을 받았으면 해서 모시고 가는 것 입니다. 그곳에 가시면 필리핀, 인도, 그리스, 미국의 선교사님들과 중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실 것 입니다. 건강상담을 잘 부탁 드립니다”

“건강 상담이라면 제가 해드리죠”

“그리고 혹시 세미나도 해줄 수 있나요?”

“배정된 시간은요?”

“내일 오전에 10시에 행사가 모두 끝납니다. 그 후부터 4~5시간 사용 가능 합니다”

“그러면 장소를 변경해서 했으면 합니다. 같은 장소에 세미나 건강 상담하기에는 제가 종교국에 고발 당하고 싶지 않거든요....하하하하하”

“알겠습니다. 저희 쪽에서 식당 예약을 해놓았으니 그곳에서 이동하여 개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서안 비행기는 마른 잔디밭을 박차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2시간20분 비행시간 동안 세미나 내용을 머리에 정리하기 시작 했습니다.

오지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건강문제와 응급 상황 처리에 대한 내용과 간단한 약 처방을 머리 속으로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부치고 있는

나를 흠뻑 취하게 해주었습니다.

황포(과거에는 작은 어촌이지만 지금은 큰 항구와 공단이 있어서 발전적인 신 도시입니다)를 지나가면서 청도 해안을 끼고 돌아가는 해변의 도시가 매우 아름답게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24년전.....갯벌이었던 이곳이 이렇게 변화된 것을 보니 나 또한 중국에서 늙어가고 있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청도 시내의 호텔에 목사님은 약속 장소로 가고, 나는 호텔에서 잠시 휴식을 하다가 겨울의 청도를 보고 싶어서 호텔 밖으로 나갔습니다.

청도는 1900년도 청나라 말기에 독일과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고 개방이 되어진 곳입니다. 청도 여러 곳에 지금도 제국주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맨홀과 하수구를 지금 그대로 사용하는 곳이 남아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도 유명한 청도맥주는 독일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청도의 겨울 해변은 무엇인가 부족한 마음을 채워주는 것이 있어서 산책하기 좋습니다. 긴 해변을 걷다가 독에 앉아서 동쪽 끝을 바라보면서 한반도 생각을 하면서 사색에 잠겼습니다. 해가 떨어지고 매섭고 차가운 바람에 온 몸이 얼어서 해변에 있는 것이 초라할 듯 하여 작은 중국 식당에 갔습니다. 작은 식당에는 몇 가지 음식만 가능하여 청도 특산물 조개볶음과 해삼볶음, 감자채소를 시켜놓고 고량주를 잔에 채웠습니다.

청도는 25년전에 나의 젊은 청춘이 잠시 머물렀던 동네입니다. 수교되기 전부터 홍콩을 통하여 다녔던 중국에서 3번째 체류하게 된 동네입니다. 고량주가 한잔, 한잔 목을 넘어가면서 보고픈 얼굴들과 그때 아련했던 그리운 추억과 아픈 마음들이 술과 같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조금 초라한 술 집이라서 그런지 7시 30분이 넘어가면서 한 쌍만 남고 가게는 허전했습니다. 바다 바람 소리만 문틈으로 들어오면서 그리움이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52도 고량주를 모두 마시고 다리가 약간 풀린 상태에서 계산을 하고 나와 다시 해변을 걸었습니다. 얼굴에 화끈거리는 술 기운과 바다바람의 차가움이 얼굴로 스쳐 지나가면서 입에는 저절로 가슴에 담겨 두었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녁 9시에 호텔에 들어와서 술과 그리운 추억에 푹 취해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잤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옆을 보니 아직 김 목사님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샤워를 하고 6시 30분에 2층으로 내려가서 호텔에서 준비한 조식을 먹고 눈이 내린 청도 시내를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청도는 해변가라 눈이 겨울에 많이 옵니다. 다른 분들은 여름 휴가를 청도로 오지만 저는 청도의 겨울이 더욱 아름다운 도시 인 것 같습니다.

눈 위에서 도시를 감상하고 즐기고 있는데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권 선생님 호텔에 계시지 않네요?”

“아침 식사하고 산책 중입니다. 목사님 2층의 식당에서 식사하고 계시면 제가 천천히 올라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층 호텔식당에 올라가보니 김 목사님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눈동자가 푹 들어간 것 보니 밤새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김 목사님 앞자리에 앉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목사님 잠을 못 자게 하는 것 보니.....평소에 농땡이 많이 부려서 혼나는 것 같습니다”

“하하하하하...또 무슨 말을 하시려고요”

“잠자면서 기도 하면 안되나요? 꼭...특이하게 금식과 잠 안자면서 기도하는 것이 자기들을 특별한 존재 인냥 생각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사람 사이에는 다양성도 있지요. 이 점 권선생님 이해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일단 식사 맛나게 하고요, 면도 좀 하시고요.....저는 먼저 방에 올라가있겠습니다”

“에…………” 기억이 있습니다 얼굴에는 사람을 경계하면서 의심을 많아지는 성격을 가졌던

올라가서 짐들을 대충 챙기고, 작은 노트에 건강 세미나 순서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김 목사님이 올라와서 세면을 하는 동안 방을 정리하고 커피 두 잔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샤워하고 나온 목사님에게 커피 한잔 권하고 세미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것으로 기억 합니다.

“이정도 되었나요?” 당뇨를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가슴이 상치면 반을 있는데, “에…” 저것이 100% 스트레스로 만들어지만……>

“ 좋습니다.” 이영숙씨는 세미나하는 동안 제 앞에서 저런 불신의 표정으로 무기력하게 앉아 “뭘 사님 청도에 10년 성당이 맞아요?” 두 시간 동안 내뿜어 뱉었습니다. 이 분에게 세미나 체류한 “아니요… 모르는데요 행사 관련이 스포츠레처먼트였지요……. 앞에 세야 하는데…” “그러면 약속 시간까지 4시간 남아있으니 독일 사람들이 만든 성당에 가서 구경하고 약속장소로 들어가지요. 청량강 성당 내에 서히 걸립니다.”가 끝나지 않은 품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권 선생님 청도를 하세요? 처음 올면서 한편으로 여성분들이 있는 한국편을 보면서 목사님이 “그냥 여행 동행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여행 들것 구상하면 산타가 웃음 활지 회여졌던

우리들은 독일 사람이 만든 성당에 들어가서 환자들을 위한 기도와 조선(중국), 고려(러시아) 한반도에 민족예레에 대한 동역주제기도 했습니다. 2013년 여행 기억이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문화혁명 때도 파괴 하지 않은 성당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사상이 자유로운 대한민국 조국에 감사 드리고 약속장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청량 시에 들어가서 한참 후 지정된 식당에 도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중에 많은 분들이 각자 삶의 터로 돌아가고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 50명이 남았습니다. 이분들은 저와 세미나를 같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불안했던 가정들이 이 때 인연이 된 분이 이영숙씨 입니다. 한국인 남편과 결혼 해서 중국에 기독교 선교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죠. 2013년에는 당뇨로 고생하는 그 분에게 처방전을 주었던

현실이었습니다. 마침 부다님에 전해줍니다. 이쿠선생님에게요? 저의 허락과 동의가 없는데도

“권 선생님. 2013년 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와 청도에 가서 뵈던 박목사님 사모님…기억하나요?…권 선생님 발표하는데 앞에서 하품한다고 저에게 말씀했던 분…기억

하나요?”“당연히화나죠…그때에도제가말씀드렸습니다.당뇨가무서운것은28%이상

“기억하죠…당뇨병과 의식이 많아서 앞으로 박 목사님이 활동하는데 욕을 많이 듣게

됩니다.조산성분…기억합니다.암은병증일어나면숨도쉬고고리외영속씨웁심하고 권생말씀을날삼겨줬네요.왜성적입니다.대영속씨체상을부정적으로대문노병하기

“하하하하…제가말고있습니다…말씀세워합니다.생각을지오날의영속씨에게말씀드리고

“어제 저녁 늦게 박목사에게 연락이 왔는데 유방암 4기에 골반 전이 되었다고 병원에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아산 병원에서 조용히 집에 가서 편안하게 임종 준비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봐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병원과 가족입니다. 병은하지…….”

“…….”“…….”“권 선생님을 기쁘게 하고 싶으니…박 목사에게 연락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이 없는 것 보니, 2013년 청도 일의 뒤끝이 아직 풀리지 않았나 봅니다.”

“하하하하…….목사님…제가 목사님처럼 소심하지는 않습니다…….하하하하…….2013년 그 때문은 아니고요, 그분 성격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아닌 박 목사님이 김 목사님에게 연락한 것도 그렇군요. 본인들의 생명과 관계되는 일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물어 보듯이 나에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예의가 없는 것입니다. 저 또한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입장이지만 그렇게 몰상식한 목사님들은 딱 질색입니다. 목사, 신부, 스님이라는 특정 신분을 통하여 자기 자리 지키고자 하는 야심이 종교인들을 저를 싫어합니다. 박 목사님 부부가 저에게 2013년 청도에서 보여준 모습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입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궁금하고 살고 싶으면 직접 나에게 연락을 하라고 하세요…….이것이 사람 사이에 기본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남을 그렇게 오히려하십니까?아있네요.쯔쯔쯔”그런말을김목사님으로부터듣고대음일마아프겠습니까?

“지뢰다 아니요?” 부인 마지막으로 향에 속겠다 집안이 넓습니다 다음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아주 죽으라고 환장을 하네요....그 똥 고집을 끝까지 못 버리는군요” <지나간 시간들입니다. 제

“무슨말인지?”한국산병원과게브란스병원에서검사받았는데같은결과가나왔습니다사실

“동북 심양은 중국에서 미세먼지 2번째, 화학 오염 1위 도시인데. 그곳에 가면 결국 고통스럽게 죽겠다는 것 입니다. 참 내.....박목사님이 많이 힘들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아무런통증도없었고,정기검사라고생각을했는데.....어떤치료를받을수있는상

“일단 제신으로이통증과그고집을하세용이 라고합니다당 의사들이한대검진행하자하면이

그리고 전화를 내려 놓고, 답답함을 가지고 휴게실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통하여 들어오는 뜨거운 해 빛을 손으로 만지면서 생각에 잠겨 봤습니다. 그 동안 내 손으로 떠나 보낸 암 환자들 그리고 살아남아서 이 땅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만들어가고 있는분들이아직점아무엇일까없다고합니다너무없다고합니다그래서인마지막날에향에있고

바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초 긍정 마인드 이었습니다. 많이 배운 것과 상관없이 세상을 믿어주는 마음과 가족, 이웃,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지혜로운 눈빛 이었습니다. 싶다고 해서 중국에 들어왔습니다.영숙씨는지금웨신을 할수없는정도로 기력이

그런 분들은 나의 80% 이상 생존 지표에 들어갔고, 지식이 많은 교수, 유명한 의사돈이 많은 고집불통 사장, 회장들 처럼 죽음으로 정리한 분들의 특징은 자기들의 기존 지식과 사회적인 관습과 같은 똥 고집이 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열린 마음이 없었지요.....열린 마음이 열린 세상을 받아 들인다는 뜻을 이해 해주기를 바라면서 다시 2층의 진료실로 내려왔습니다. 없어서 누워 있습니다>

그날 저녁 웨신으로 친구요정이 들어왔습니다. 박 목사님과 이영숙 공동 웨신 방 이었습니다. <정도 세미나에서 말씀 한 내용을 지키지 않았군요...>

<안녕하세요? 저의 부부가 권 선생님 마음을 많이 불편하게 했다고 김 목사님에게 들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로서 심심한 사죄를 드립니다. 아직 미숙한 저희 들이기에 넓은

〈6개월은 잘 하다가.....제가 사역이 바쁘다는 핑계로 잘 챙겨주지 못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발이 멀쩡한데, 자기 건강을 자기가 챙겨야지....목사님이 무슨 책임이 있나요?〉

〈저의 책임도 많습니다〉

〈알겠습니다....제가 어떻게 도와 드리기를 바라나요?〉

〈사실....이대로 부인을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안으로 내려 오시어서 저와 치료 상담을 받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병마와 싸우려면 공기와 산림이 우거진 연길 또는 장백현(백두산 줄기)에 조 선족이 많은 동네에 가서서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상태로는 아무리 좋은 약과 치료방법을 알려준다고 해도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영숙씨가 보여준 의 심병과 저돌적인 행동, 누구에게 의탁하는 게으른 성격.....이런 것으로는 절대 암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암은 본인의 노력과 투지, 열정이 중요합니다. 현재 세상에는 암을 치료하는 한가지로 구성된 명약은 없습니다. 치료방법은 저의 병원에 방문을 하고 나서 서로 토론하면서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암이 더 이상 급성장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탕과 고기 단백질 종류, 우유, 미원....등 화학제품과 가공식품은 드시지 마세요. 특히 여성용 샴푸, 화장품을 사용하지 마세요. 몸에서 화학제품을 절대적으로 멀리하세요〉

〈알겠습니다. 부인과 의논하여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틀이 지나서 전화가 들어 왔습니다

“권 선생님. 내일 서안 비행기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비행기 탑승 하지 마시고 시간이 걸려도 기차로 오시기 바랍니다. 여행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오시기 바랍니다. 단 기차 안에서 라면과 빵을 드시면 안되니 과일을 많이 가지고 탑승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비행기 안되나요?”

“비행기 안에는 지구에서 사용하는 산소와 다른 개념의 산소를 인공적으로 기계를 통하여 만들기 때문에 암환자들은 기내 산소가 몸에 좋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그러면 다시 표를 예매를 하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생님 말씀대로 부인과 의논을 했더니 친구가 장백현(백두산 줄기)에 있어서 그곳에 집을 얻었습니다. 공기 좋고 물도 좋고...그곳에는 고구려 유적인 많아서 나중에 권 선생님 한번 방문하면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좋은 곳에 선택을 하시었네요”

그리고 4일 지나서 김 목사님에게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저 지금 박목사님 부부가 1시간후에 북 역으로 도착한다고 하여 마중 나갑니다. 그분들을 모시고 저의 집에 가서 휴식을 하고 내일 오전에 병원에 방문을 하겠습니다.”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차 타고 3일만에 왔으니 식사부터 잘 챙겨주시고요. 체력이 회복 되는 데로 병원에 오시면 됩니다. 아~~~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방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병원 일을 마치고 김 목사님 집에 가서 저녁 밥 좀 도둑질 하러 가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김치찌개면 됩니다. 다른 반찬은 만들지 마시고요. 박 목사님 부부들만 불편 없이 챙겨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영숙씨에게는 식초 물을 타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3일간 내려오면서 몸에 누적된 젖산이 빠른 시간 내 풀려서 몸이 회복되는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하하하하.....어려운 반찬 주문 입니다. 일단 고기는 저의 집에 없습니다. 환자가 오기에 저의 부부도 당분간 고기를 밥상에서 치우기로 했습니다. 상추쌈에 된장찌개 입니다.”

“하하하...아주 좋아합니다”

“저녁때 뵙겠습니다”

그리고 퇴근시간이 되면서 치료용 물건을 챙겨 들기 시작 했다. 먼저 환자 보기 전에

무조건적으로 진행하는 두 가지를 먼저 챙겼습니다. 놓아놓고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종양유엠 700L에다가 2013년에 제명해줄랬으니까요. 당노치료예본은
종양정보카드물이라고... 그때영숙씨는저에게차에있는것도물이라고고집부렸고저는차와

그리고 유방과 골반전이에 관계되는 비타민과 엘-글루타민(장누수 현상과 면역력,
그리고 면역기능을 높여주는 영양제)을 사서 차로 마시게 하려고 했었는데, 집부리고

버스 타고 지하철 2호선을 타고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40분간 회의중심 역전에서
내려서 다시 택시를 타고 동이루 방향으로 20분간 더 갔습니다. 중국은 한국 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교통이 장난이 아닙니다.....무질서 속에서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를
이해 못하면 대형사고가 납니다...그래서 한국 분들이 운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여
하중교통혼잡하니까요. 기면제야기하영숙씨를면세유를팔아가원심한원이라고

아파트 앞에서 내려 마트에 들어가서 700L 종양유엠 물을 담을 수 있는 예쁜 물통과
과일지를입하엔드폰을어쑤소물면아파트를아갔습니때갈했더바문밖다갔것을합니다.

12월30일인종유리교원렸습니대은날연속으로말씀을했습니대말이라졌물예3

소박한 집.....언제나 김 목사님의 집은 소박하였습니다. 그 전에 있던 집도 소박하고
새롭게 이사 한 집도 아주 소박한 집 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던 박목사님 부부가
일어나서 반가운 표정으로 서로 악수를 했습니다. 이영숙씨는 얼굴이 많이 핏색해져
이었고, 서로 악수 하는 순간 내 손으로 차가운 냉기가 몰려 들어왔습니다. 엄청난 냉기
였습니다.정보즉암세포를자살로유도하는프로그램이입력된물을드리는것입니다.이물을
“이영숙씨언제이렇게말에되어왔어되겠습니대통하예본적으로말할것입니다.”

“온 몸에 한기를 느끼면서 살아간지가 10년 이상 되어서.....이제는 별 감각이 없어요”

“여성들몸에가우뮌조영제있습니대정유엠것을피보인영숙씨저를면제했습니다.이걸

저는 말을 하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 목사님 사모님이 저녁밥을 준비하는 동안
잠시 저는 종양 유엠 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한 종양 유엠 물을 이영숙씨 앞에

수 있나요? 이 돌덩어리로 저와 같은 암을 고친 근거가 있나요?”

“역시……그 개 버릇 아직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오늘 왔습니다”

저의 험악스러운 말에 주변 분위기가 설렁해지고 주방에 도마 소리도 멈추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던 목사님과 사모님도 놀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음을 작정하였기에 이런 분위기를 무시하고 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남을 믿지 못하시면 스스로 연구해서 암 치료제 개발하고 드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영숙씨와 논쟁하려고 이곳에 온 것도 아니고요. 이곳에 물건 팔아먹으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사람에게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분과는 저는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박 목사님이 웃으면서 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하하하…..권 선생님. 화를 푸시고요. 저의 부인이 한국어를 잘 이해 못해서 그렇습니다. 조선족이라도 중국인 학교에 다니면서 생활을 해서 우리의 문화와 정서를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조선족이라도 한족마을에서 생활을 하고 한족사람들과 지내면 한국어를 한다고 해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의와 행동이 우리와는 틀린 민족으로 봐야 합니다. 제가 조선족이라고 생각하고 한국 남편과 살고 있어서 제가 방심하고 신분과약 하는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순간 얼굴이 붉어지면서 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이영숙씨를 보면서 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저의 생각만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점 이해를 해주시고 중국어가 편안하시면 중국어로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저의 이야기에 이영숙씨 입에서 바로 중국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긴장이 풀어지는 것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어를 잘못해서 한국어를 하게 되면 온몸이 긴장 됩니다. 그리고 얼굴이 저절로 인상 쓰게 되고 온통 머리가 복잡해 지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환자의 입장으로써 확실하지 못한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이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 한결 이영숙씨에 대한 오해감정이 풀어지면 서편안하게 중국어로 말을 했습니다.

“한국어는 어느 정도 이해 하나요?”

“말에 영어를 쓰지 않으면 70% 알아듣지만 영어를 쓰면...거의 힘들어요. 글씨는 50%도 이해하기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물의 원리는 간단 합니다. P53이라는 부르는 단어는 세포가 스스로 이상이 있을 때 스스로 자살을 유도하는 단백질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몸의 세포는 각 기관에 따라 틀리지만 1주기, 30일, 몇 년 주기로 세포가 스스로 교체가 됩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정상 세포인데 암세포에는 P53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계되는 명령체계를 여기에 보이는 스티커와 세라믹 돌에 입력을 한 것입니다. 물이 이곳에 접촉되면 그 정보가 물에 기억이 되는 것 입니다. 흡수된 물과 물에 정보가 몸에 들어가서 비 정상세포, 즉 암 세포에 들어가서 자살을 유도하는 것 입니다.”

“아~~~이해가 됩니다.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기 치료와 동일 한 것 인가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제가 이것에 대하여 공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김현원교수”를 검색하면 김교수님이 쓴 책들이 있습니다. 구매

책을 추천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전공이 무엇인지 물어봐도 되나요?”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했어요”

“그러면 공부하시기 편안할 것 입니다”

그리고 저는 메모지를 꺼내서 몇 가지 추천 할 만 책들을 적어서 이영숙씨에게 주었습니다. 분위기 한결 부드럽게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밥상 위에는 채소와 된장 그리고 여러 가지 채소 중심의 무침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김 목사님 부인의 세심한 배려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온통 건강에 대한 담소를 나누면서 식사를 마치고, 우리들은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여름 날씨에 에어컨 사용을 못하는 관계로 부채 들고 공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박목사님 부부는 서로 산책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권 선생님. 현재 저의 부인의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은 맞나요?”

“예....아까 주신 서류에서도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손을 놓고 그날만 기다리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은 하늘에 맡기는 것도 인간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같이 산책을 나오자고 한 것은 이영숙씨에게 몇가지 알려드릴 체조가 있어서 나온 것 입니다. 3가지 입니다. 나무 밑에서 하는 손뼉치기 즉 고려 시대에 수박권법으로 무인들이 사용했던 것을 응용하여 만든 것 입니다. 이렇게 소나무 밑에서 제가 하는 방법으로 일일3회 1회에 200회를 계속하시어야 됩니다. 암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저 산소와 저 체온입니다. 이 운동만으로도 온 몸에 땀이 나고 온몸으로 산소가 풍부하게 들어갈 것 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무밑에서 손뼉치기 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동작 수정을 해주었습니다. 20번도 못하고 이영숙씨는 힘들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하하하하...앞으로는 힘들다고 포기하면, 특급열차 타고 하늘나라 빨리 가는 것 입니다. 이 악물고 움직여야 살수 있습니다. 움직이면 살고, 편안하게 누우면 바로 가는 것 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내려와서 대화 하자고 하는 것 입니다. 본인의 의지와 인내가 없이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지요..”

“에.....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혈액은 심장의 펌프기능을 통하여 혈액 3KG가 매일 신체 전체 순환을 하지만 림프액 6KG는 펌프가 없기 때문에 면역세포, 죽은 세포, 바이러스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운동 외에 방법이 없는 것이 문제 입니다. 그래서 제가 6가지 림프 운동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매일 30분씩 일일 2~3회를 하시어서 림프 흐름을 좋게 만들어야 몸에 하수구가 잘 뚫려서 몸이 깨끗하게 될 것 입니다”

그리고 나서 림프 운동 6가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 해주었다. 그리고 잠시 우리 신체 기관의 역할과 흐름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상식들이 혼자 암 투병 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고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암 투병을 하다 보면 주변에서 들려오는 암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로 인하여 흔들리는 마음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 여름날의 밤은 이렇게 온통 땀으로 목욕을 하고 내일을 약속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서 하늘을 봤습니다. 하늘에는 도시의 불빛에 의하여 별을 볼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은하수를 그리면서 돌고 있을 것입니다. 그곳을 향하여 마음속으로 이영숙씨를 위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다음날 오전 김, 박목사님 내외분들이 저의 병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어제 어두웠던 이영숙씨는 오늘 한결 부드러워진 얼굴을 가지고 저의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여러가지잡곡을혼합합니다가장좋은것은새싹을첨가한밥이최고입니다새
“어서오세요”씩이란여러씨앗을물에서불리는것을말은합니다.여름에는12시간겨울에는

서로 간단한 아침 인사를 하고 간호사에게 1시간 진료시간을 빼내고 냉장고에 일반
유엠 물을 3명 앞에 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영숙씨는 정보 유엠 물을 테이블에 올려
놓았습니다24시간불리면씨앗에서발아시키는것입니다그것으로밥을하는것인데,그곳에서는
“오늘배벽운동했나요?일반적인폴리페놀은10배에서많은것은100배이상분위있다.그때
저앞에이영숙씨환결드러워진얼굴표현을해주었습니다밥물양은중요영양을올라용합니다.

“예. 조금 일찍 일어서 손뼉 운동과 림프 운동 6가지 모두 했습니다. 한결 편안하고
호흡하기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천음식

그리고 제가 미리 인쇄해놓은 자료를 박 목사님 부부에게 전달을 해주었습니다 거
기에놓가지지않게되었습니다절대맛있는식으로해내랄것부채를해내소통하여귀
면역까지되낼수있습니다네랄을취하고비타민까지충족하게됩니다그리고일주일종류,
녹색채소 당근, 양배추를 같이 넣어서 갈아서 드시면 좋습니다.

운동 방법

3 육체 면역학: 좋은 식생활 습관과 운동방법 그리고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여
소멸시키는방법을체계적으로말합니다.암을예방교육과대사증000만여명에게부름을시켜서
금지음식 운동을 해야 됩니다. 피부에 선 크림을 바르고 운동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암세포가 성숙하고 세포분열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입니다. 언제나 음식을 조리 할 때
꼭 이 부분에 대하여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화장품 사용방법

설탕, 조미료, 화학양념, 고기단백질(생선 조개류 포함), 면, 빵, 고기, 우유, 우유와 관
련된제품산음료,포화지방산,공식문화학성분1%리더가장잠쉬비삼루...절대음식을
쌀밥에혼합되는성분없습니다염색한것을상태로돌려서차안상태로유지합니다신체에어떠한
고량미(수수 천연 비타민B17이 가장 많은 곡류) 20% 이상, 검은 쌀 10%. 검은 콩 10%,

화학제품이라 접근하네요. 다들 알고 있는데, 이걸에 세간을 내다 보니 제복하면 하수준까지
대단히 웃을 수 있는 거 같아요. 저한테서 이영숙씨에게 한두 번 웃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종이팩을 들고 옆에 앉았어요. 말을 더듬어 간호사에게 간간히 카드를 넘겨 주었다. “이제는

“이해되는데,,,,,실천하기 참 어렵네요. 종양카드만 지고 간호사한테서 카드에 대해 물어봐도

박 목사님이 고개 까우등 거리면서 답을 하고 있을 때 이영숙씨는 강한 마음을 가진
어투로 말을 했습니다. “후기이고 들어온 공간 카드 설명을 주시고 설치 방법을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나한테도 물어봐도 괜찮아요. 이거는 종양카드인 거 같아요. 간호사한테 물어봐도

“하하하하하.....정말 명쾌한 답입니다. 화학제품도 중요하지만 식사 습관 그리고
운동 습관,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 등이 암 말기 일 때에는 가장 중요합니다. 0.1%가
생존과 직접적으로 좌우하기 때문에 방금처럼 이영숙씨는 언제나 깨어있는 정신으로
하루하루를 견뎌옵니다. 이것이 공간카드를 활용하는 방법과 공간에 보다 나은 변화를 주는 겁니다.

다소 부드러운 분위기가 실내를 적시고 있을 때, 간호사가 조용히 옆에 와서 나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공간에 에너지의 하여 몸매에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권 선생님 카드 중에 하나요? 박 목사님 부부께 공간카드를 기하듯 써 달라고 이영숙씨에게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김 목사님이 일어나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면서 말을
했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권 선생님 죄송합니다. 급하게 올라 오다 보니 환자 등록을 안하고 와서 카드 발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 돈을 드리겠습니다...죄송합니다” “권 선생님...이 카드는 부적과 같은 것
나와 주간호사는 한참 명해있다가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웃다가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목사님 부부들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우리들만 쳐다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짜를 꺼내서 보여 주었습니다. 종교적인 제물이 보였을 때에 사람들이

“언제 김 목사님이 저의 진료실에 올라오면서 등록하고 올라온 적 있나요? 그리고
주간호사 이야기하는 카드는 등록 카드가 아니고요.....종양카드와 공간카드를 이야기

돌려야하기 때문에 주기로 했습니다. 황금(중약독서) 중약적치료제)을복용할때 3개월을부터
 “부적이라는 것도 일종의 공간 에너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개념으로
 물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화폐가 중국에서 유통을 되어도 어느 것은
 신부님 손으로, 어느 것은 스님 손으로, 어느 것은 목사님 손으로 사용 되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물질의 형태 이지만 사용에 따라서 종교적인 의미가 바뀌어지는 것 입니다. 부
 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척이라기보다는 공간 에너지 즉 미세 공간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서히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장기복용을해야 합니다. 최소 1~2년간
 그리고 또 한 장의 종이를 건너 주었습니다. 장기간 복용하는 것 좋습니다.

물리치료요법 종합비타민 B군에 부족함 12점 산셀레늄아연과그네슘을추가하여같이복용을
 뼈와 지방에 전이 되어진 상태 이기 때문에 일단 저 체온 증세 해결을 위하여 배꼽
 뜸으로 일일 1~2시간을 합니다(단 바닥이 따스하지 않으면 효과가 격감한다) 합니다.
 저 산소증을 위하여 소백치기를 일일 3회 매회 최소 200회 진행을 해야 됩니다
 취침 전에 생강 물을 끓인 것을 먹으면서 반신욕(족욕)을 40분간 진행을 합니다. 언
 제 체온이 체온보다 따뜻하게 유지해줍니다. 황금 산소량 30%, 이산화탄소 30%, 질소 40%,
 림프체조 30분 전 2회 진행을 합니다. 공복 약 2시간 15분과 잠 직전 약 2시간
 약물 요법 오전과 오후에 복용을 합니다.

비타민 B17과 C 정맥주사를 진행을 합니다. 단 B17는 포도당에 넣어서 사용을 합니다.
 비타민C 12g을 15일간 정맥주사를 투입을 하고 나머지는 분말로 해서 일일 12g 매일
 복용을 합니다. 단 B17는 12주간 2틀에 한번 정맥주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 2회 정맥비타민b17을 100mg을 주 2회 그리고 그공복에 일일 250mg을 비타민d와그네슘을
 비타민B1 50 mg와 비타민B12를 1000mg을 주 2회 한달 간 투입을 합니다. 복수 또는
 면역계통을 활성화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D 300,000IU단위로 월1회, 3개월간 투입하고
 경구용으로 복용을 합니다. 복용하는 것이 효과 좋습니다. 취침 30분전에 복용을 합니다.

황제호르몬(DHEA)가-3(포도당 1개)를 사용한다. 신하가 복수 남을 이름 대원
중이(중약분말가루장년면역력과관계된다)일일5g씩복용합니다사랑을누가있었습니다.

이영숙씨는 약 처방과 병원에서 제조한 약을 들고 서안에 내려 온지 5일만에 다시
심양에서 걸쳐 장백현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넓은 중원을 지나서 산해관을 넘어
백두산 줄기 장백현에서 생활을 시작한지 1달이 되어서 복수가 차는 현상이 일어났습
니다. 일단은 단동(신의주 앞 도시)까지 나와서 천자(복수 빼는 간단한 외과치료방법)를
하고 중약을 추가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자...3회에 걸쳐 외출타기를 하면서 본인,

식구들간담에산해관처럼해고있었습니다.12월을이장백현에서방향을가늠배고했습니다

동북지역은 이곳보다 영하-20~30도가 더 추워지는 곳 이라서 11월 초에 벌써 온돌
방을 사용하고 있는 사진들이 들어왔습니다. 11월 20일부터 산과 들판에 눈이 오는 사
진과 한겨울에 산, 계곡 사진 등이 올라왔습니다. 복수가 차면서 커피관장 방법을 일일
2~3회 주 5일 동안 진행을 알려주고 중약 내용에 십전대보탕을 추가하여 떨어지는 체력
보충을해주었습니다바스쿨어보신문지와이끼에장정되어있는장님씨가었습니다.뒤에작은

12월이 겨울은 참으로 길었습니다.....깊어가는 산속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영숙씨
에게 희망적인 이야기가 1월부터 들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외관적으로 체중이 증가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극한 상황에서는 작은 것에도 행복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
습니다.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체중의 변화는 간단에게 암세포 증식을 예측 할 수가 있습니다. 암세포는 포도당 5개를
가지고 젖산 발효를 하기 때문에 식사를 많이 해도 살이 빠지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입
니다. 정상세포에서는 포도당 한 개에 산소 하나가 붙어서 ATP 대사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면 체중이 감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체중

으로영식월정제출있었다겨울오전산타니침마니체말았었습니다.전까지분문에
1월에 장백현의 산속에서는 생명의 끈질긴 삶의 투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영

받은 선물을 보내 드리고자 합니다. 병원에서 필요한 분들에게 권 선생님이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에서 이야기한 시한부 시간을 벌써 5개월 넘어간 것 같습니다. 아직 체력의 회복은 모두 되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보행과 간단히 주방 일을 도와줄 정도로 영숙씨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권 선생님 말씀처럼 자연은 알 수 없는 위대한 힘을 우리 몸에 넣어준다는 것을 이 산속에서 5개월간 지내면서 느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삶과 죽음이라는 시간에 얽매이기 보다는 하루 하루 자연에서 선사하는 아름다움에 감격을 합니다. 그리고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웨신은 자주 잘 안되어서 하루에 2번만 집 앞에 나무에 올라가서 확인을 합니다. 타잔 놀이 합니다.....>

<얼마나 깊이 들어가서 살고 있길래.....>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장뇌삼을 받아서 필요한 분들에게 다시 나누어 주었습니다

3월에서 4월이 넘어가면서 봄이 물씬 풍기는 냉이와 민들레 한 박스가 병원으로 배달이 되었습니다...와~~장백현의 냉이와 민들레의 향기는 온 병동으로 퍼져나갈 정도로 향기와 신선함이 대단하였습니다.

저는 박스를 보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자연의 힘에 다시 감동을 했습니다.

<아~~~~이 정도 향기라면 지금 박목사님 부부가 있는 곳의 생명력이 얼마나 좋은 토양 위에서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영숙씨의 생명이 다시 시작할 만 한 곳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작은 냉이에서 이 정도 생명의 향기가 날 정도면...소포가 이곳까지 오려면 최소 5~7일 걸리는데...대단한 생명력을 느껴봅니다. 장백현 겨울 산에 심마니들이 캐어다 주는 산에 버섯과 약제들을 먹고 있는 이영숙씨를 생각하니...좋아지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식사 한번 대접을 할 수 있게 연락을 부탁 드립니다”

5월 드디어 즐거운 손님들이 서안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얼굴에 살아 숨쉬는 산악인 처럼 단단한 체력의 박목사님 부부와 도시에 하얀 피부를 가진 김목사님 부부가 10개월만에 자리에 앉아서 검사 데이터를 보고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암이 소실이 된 것은 아니지만 원발암에 유방 쪽에는 없어지고, 뼈에 작은 형태로만 보일 뿐이었습

니다.“하하하하하……아직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말기에서 이 정도 회복을 했으니, 이제는 작은 것에 만족하는 삶. 복잡하게 살아가지 않는 삶, 나눔을 실천하는 삶……이런 삶을 산속에서 살아가면 어떤 생활이 될지 모르나 다음을 안 하겠으니 생활습관 등으로 건강을 관리하리라.” “박목사님…산속 생활은 어떤가요? 한국에 있는 김현원 교수님에게 제게 연락을 놓겠습니다”

저는 박목사님 친한 아이라서 이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박목사님 부부가 김목사님 부부와 함께 산악인 “아이와 같이 천진난만하게 자연을 벗삼아 돌아다녔더니….자연은 어머니와 같은 따스함과 생명력을 담아 주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부인과 상의해서 내년까지 1년을 더 있기로 했고, 한국에서 가지고 온 새로운 유기농법을 주민들과 의논하면서 작물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채소와 산에 나물들을 심양과 데렌쪽에 한국인과 외국인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좋아하니 정부에서도 관심을 두실 것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건강한 식단이 건강한 몸을 만드는 사랑을 직접 실천하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영숙씨는 어떤가요?”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김현원 교수님의 책들을 모두 보고 추천해주신 책들을 모두 보고 나서 암과 건강에 자신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성경까지 내 마음에 담아서 이제는 무엇보다 마음이 평온하여 하루가 늘 즐겁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김교수님 책을 독해 하다 보니 한국말을 이제는 거의 완벽하게 합니다…저에게는 그 동안 약점 이었던 한국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어 사전을 부쳐주신 박목사님에게 감사 드리고 한국에 계시는 김현원 교수님에게도 감사 드립니다. 내년에는 한국에 가면 꼭 김현원 교수님에게

이~~동토의 하늘에는 나뭇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 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들어와서 어떤 사회가 좋고 경제발전에 근거하여 돈 자랑보다는 사람중심, 인간중심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문명, 사회보다 우선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중심이 되지 못하는 의료활동과 의료기계들은 사람을 두 번 죽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따스한 웃음이 가득한 물 파랑새의 사랑을 기대하며.....

장백현으로 들어가서 가을 맞이하고 있는 박목사님으로부터 또 소포가 들어왔습니다. 향기가 가득한 버섯들....그리고 편지 한 장.....그 편지 한 장에는 또 다른 물 파랑새의 인연이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댓글5추천 김현원(서울)17.10.23 18:41 첫댓글 항상 그렇게 생각하지만 개발자인 제가 할수없는 대단한 일을 권대희 선생이 하고 있습니다. 권대희(시안)작성자 17.10.25 17:52 저는 늘 김교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글에는 올리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물로 인하여 건강해지고 있으니 모두 김교수님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은미현(서울)17.10.27 11:16 림프체조는 어떤건지궁금하네요 최윤택(서울)17.10.27 18:52 정말 늘 잘 읽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김영승(경남)17.11.18 23:33 _0_